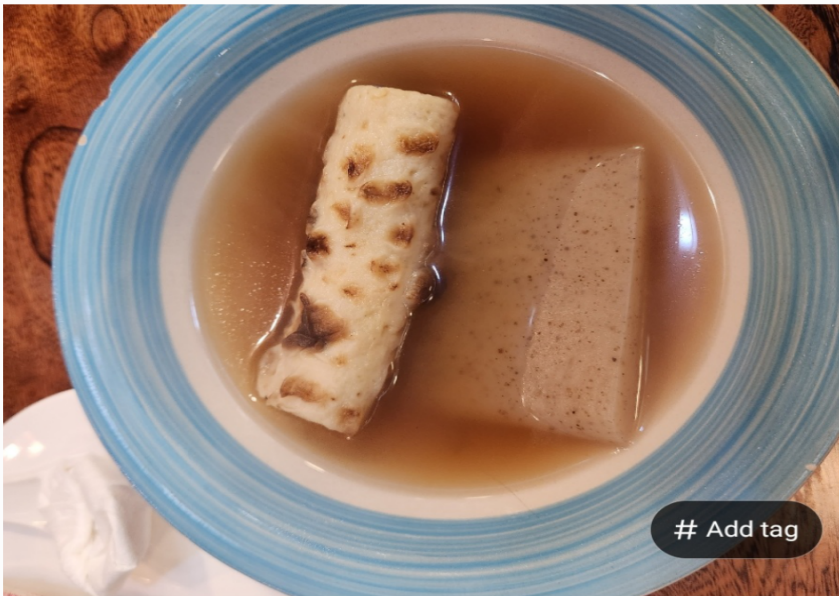


2023년 12월 6일 오후 7시부터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에어아시아 동료 김수일 사무장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김수일 사무장을 비롯해 저와 세부퍼시픽의 이주화 부기장까지 총 세 명이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장소는 필리핀 마닐라의 마카티였습니다. 이주화 부기장은 에어아시아 동기의 소개를 통해 에어아시아와 세부퍼시픽에서 일하는 한국인 기장, 승무원들끼리 종종 단체모임을 가져왔었고 이전에 약 5회 가량의 식사나 단체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게 된 것은 9월 경이며, 사건 이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것은 12월 1일입니다.

1차 장소 - 만마루 (Manmaru)

2차 장소 - 이자카야 코지로 (IZAKAYA KOJIRO)



December 6, 2023 9:27 PM

[Edit](#)

20231206_212706.jpg

/Internal storage/DCIM/Camera

Samsung SM-F936N

3.62 MB | 3000x4000 | 12MP

ISO 640 | 23mm | 0.0ev | F1.8 | 1/120 s

한 일본 이자카야에서 1차 후 9시 쯤 2차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저희 몇시에 헤어졌나요 혹시

ㅠㅠ

12:28 PM



[에아 Batch 52] 수일 선배님

저희 열두시 사오십분쯤 헤어졌
어요 ㄷㄷ

12:31 PM

김수일 사무장의 말에 의하면 술자리는 7일 오전 12시 45분 쯤 헤어
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그랩타고 온 거 확실한가
요? 수일사무장님께서 택시타는
걸 본 기억이 없다고 하시네요

가방에 지갑이 없어서요

3:33 PM



이주화

그랩 탄 기록이 있습니다.

집이 도보로 3분 거리밖에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이주화 기장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랩을 잡아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
니다. 이는 이주화 기장의 휴대폰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저는 2차 장소에서 있었던 술자리 중간부터 벨몬트호텔 9020호에서 눈을 떴을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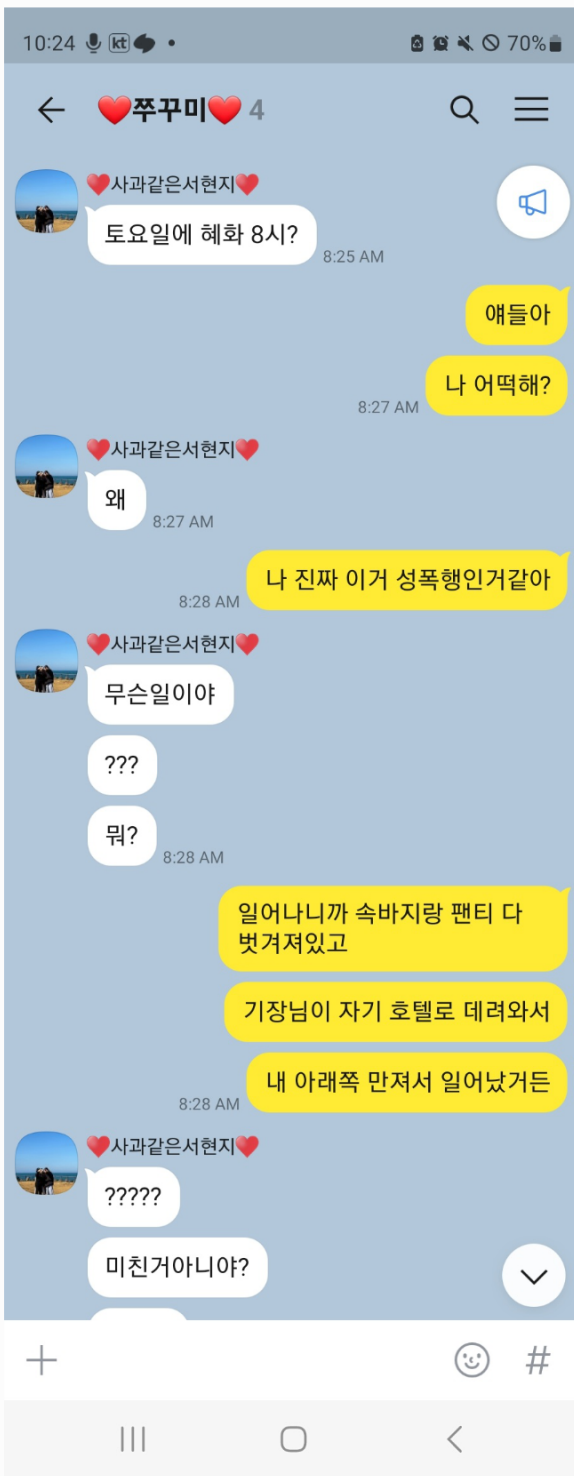
6시 30분에 이주화 기장이 손으로 저의 생식기(질)을 5회에서 10회 정도 만지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주화 기장이 제 왼쪽에 누워있었습니다. 이불 안에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저와 이주화 기장 모두 정자세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불 안에서 자고 있었던 저를 추행했습니다.

저는 반팔 롱 원피스는 입고 있는 상태였으나 속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이주화 기장의 머리 위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양말 또한 벗겨져서 제 오른쪽 머리맡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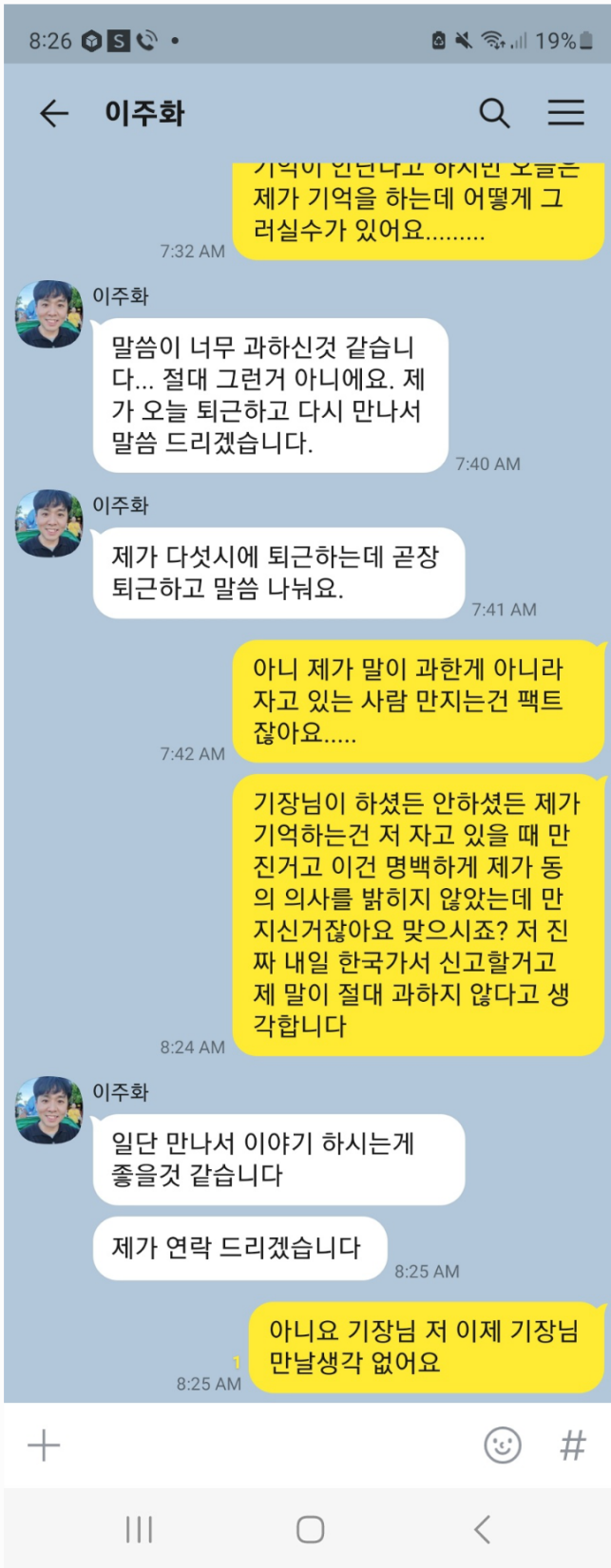
이주화 기장은 상의를 탈의하고 있었고 하의는 바지와 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장 바지는 아니었고, 진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자마자 왜 제가 이 호텔에서 자고있고, 왜 저를 만졌고 왜 팬티와 속바지가 벗겨져있는지 따져묻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인 아침에 만진것마저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습니다. 더불어 성관계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6분 42초 가량의 녹음파일로 제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해야한다며 끝나고 연락드리겠다며 오전 7시 20분쯤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퇴근때까지 계속 기다릴 생각이었으나 그 방에 잠시 혼자 남겨있는 순간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계속 추행을 당하던 오늘 아침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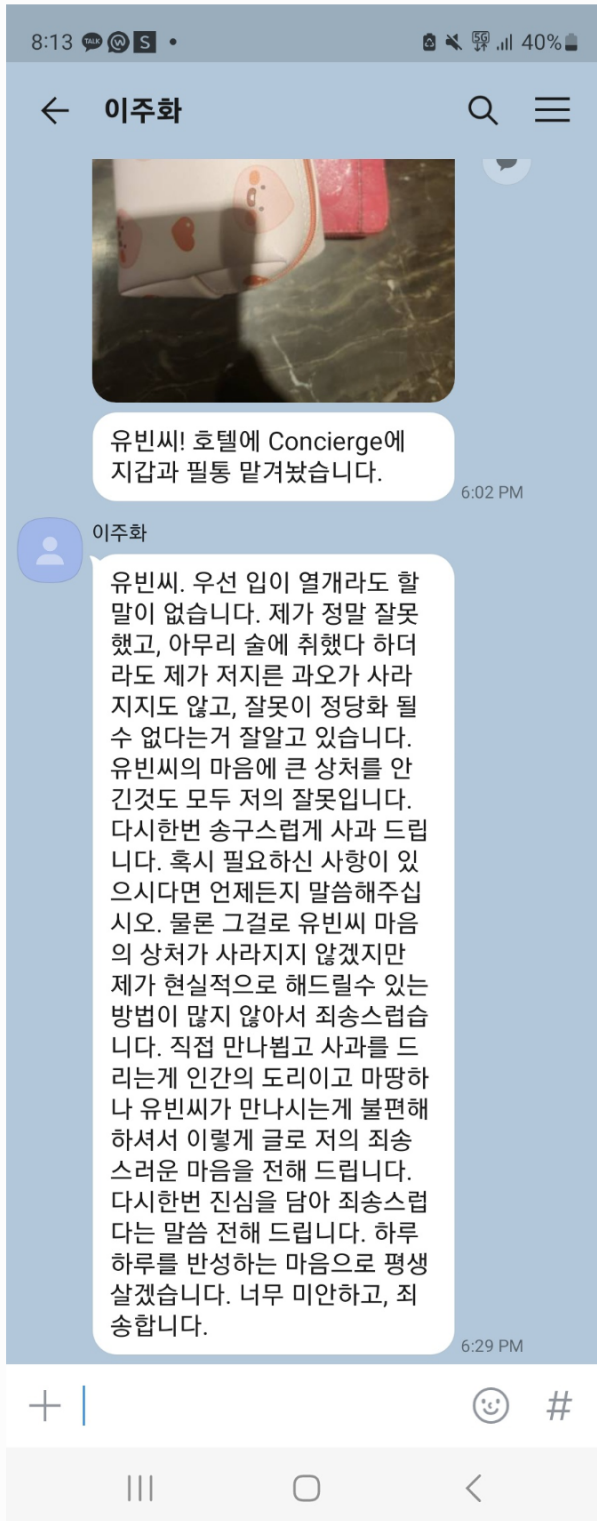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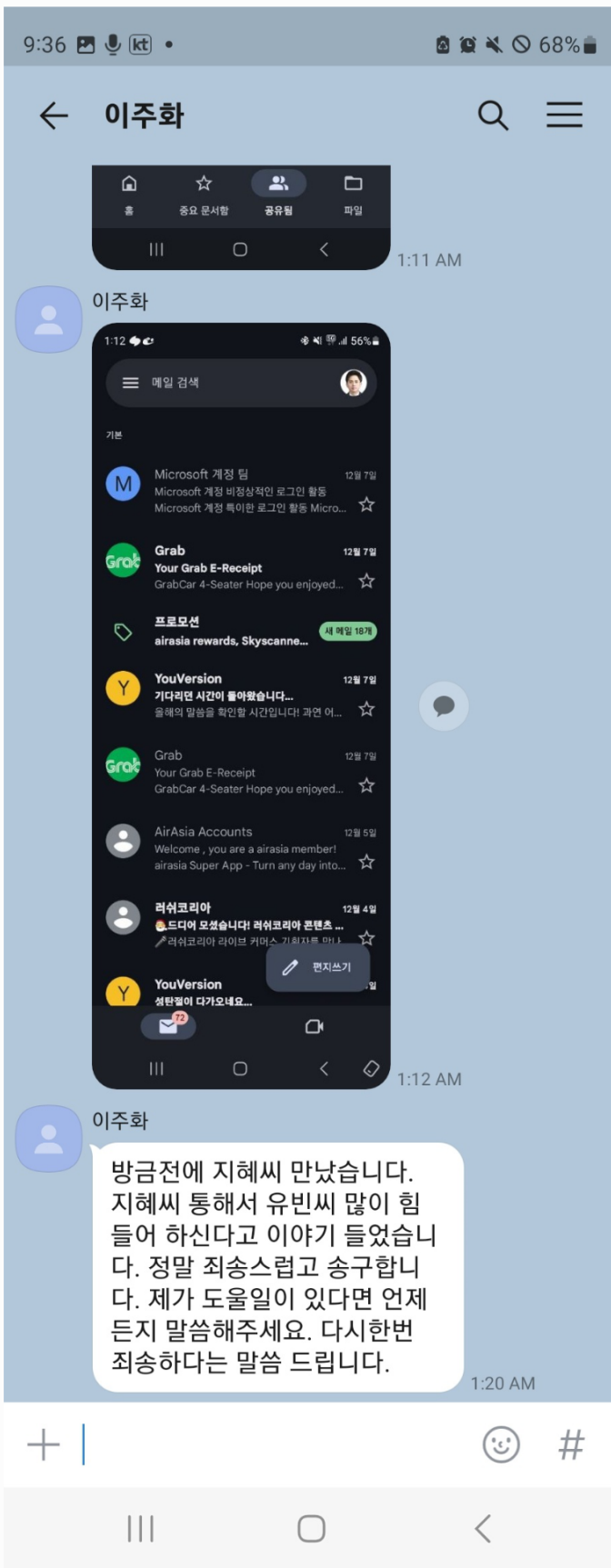
남자친구와 가장 친한 여자인 친구 세명, 엄마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빠르게 그 곳을 빠져나올 것을 권했고 친구들은 증거를 남겨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호텔을 빠져나온 시간은 오전 8시 52분입니다. 계속 기억이 안난다며 이건 명백한 성폭행이라고 말하는 제 말에 말씀이 과하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신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오후 5시 43분에 이주화 기장이 저를 끈질기게 설득해 15분간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평생 저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제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다면 모든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또한 여전히 성관계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절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이주화 부기장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겨줬습니다. 저는 제가 자는 사이에 혹시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을까봐 동기 언니의 도움

을 통해 그 사람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그 어떤 말도 믿기 어렵습니다.

필리핀 경찰에도 이미 벨몬트호텔 로비와 복도 씨씨티비 공개를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 저는 호텔에 데려가는 것은 물론이며 절대로 제 몸을 만져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아침까지만해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과를 하며 돌변한 태도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일이 일어난 이후 증거 수집을 위해 전 직장의 변호사님께 연락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했고, 해바라기 센터를 알게되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병원 검사와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화 부기장은 저 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들과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제 의지에 상관없이 아무때나 눈물이 흐르고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힘이 듭니다. 첫 취직을 한 후 필리핀에 와서 같은 국적의 믿을 수 있는 동료라고 생각했던 한국인에게 큰 일을 당했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